



대만 불광산사는 8월 28일 운제루에서 공승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법회가 끝난뒤 휠체어를 탄 성운대사가 사부대중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



공승법회에 참가한 스님들에게 공양 선물을 올리는 장면. 이 자리에는 26개국에서 참가한 사부대중 7천 명이 참여했다.



화려하면서도 품위가 있고 단조로운 듯하면서도 세련미가 묻어나는 보살무 축하공연.

공양은 곧 수행... 평등정신 깃들여

대만 불광산사 공승법회

“출가는 인생 행로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출가는 일시고 신앙은 일생의 일입니다. 오늘 출가의 발심을 일으킨 여러분들은 중생제도를 위해 몸 바치겠습니까?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셨습니까?”

8월 28일 대만 불광산사 공승법회에 앞서 여래전에서 15명의 출가 삭발수계식과 69명의 임제종 법맥 전수식을 함께 개최했다. 출가한 가족들과 2,000여 대중들의 진심 어린 축하와 기쁨은 한국의 분위기와 사뭇 달랐다. 출가의 기쁨인 것이다.

부산 김해공황에서 타이페이까지는 비행기로 2시간, 타이페이에서 불광산사 본산이 있는 카오슝까지는 버스로 4시간 가량이 소요됐다. 불광산사 옆에 티베트에서 기증받은 부처님 치아사리를 모시기 위해 건립된 불타기념관을 들어 선 첫 느낌은 그야말로 불국토(佛國土)였다.

부처님께서 상주하시고, 평화와 즐거움이 가득한 불교적 이상세계. 불자라면 누구나 동경하는 세상. 사람 몸 받아 꼭 한 번이라도 살아있는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는 사바세상의 꿈. 그 불국토가 지금 눈 앞에 펼쳐진 듯 그 장엄함과 웅장함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한 쪽에서 한 노스님이 흘쩍인다. 너무 감동한 나머지 내비친 환희심이 눈물로 흘러 내린 것이다. 감정을 수습하기도 전에 공승법회가 개최되는 불광산사로 발길을 향했다.

공승법회를 앞 둔 탓인지 그 웅장한 사찰이 비좁은 듯 참배객으로 가득했다. 갖가지 화려한 복식을

차려 입은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 세계 각지에서 방문한 스님·불자들의 행렬도 분주하다.

안내하는 지객스님을 따라 먼저 도착한 곳은 여래전이다. 공승법회 행사의 일환으로 '2013공승법회기체도전법대전(삭발수계식과 임제종 49대 법맥전수법회)' 등이 먼저 진행됐다.

불광산사의 성운대사, 전주지인 심정 스님, 심배 스님, 현 주지인 심보 스님, 부주지 혜개 스님 등을 증명으로 법회가 진행됐다. 이날 출가한 15명의 출가자들의 국적도 다양했다. 호주, 영국, 브라질,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등이다. 불광산사의 법의 폭이 가히 세계적 규모임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임제종 49대 법맥 전수식에는 영축산불교교단 창건주인 심도 스님을 비롯 69명이 법을 이어 받는 행사를 끝으로 공승법회 장소로 발길을 옮겼다.

2013공승법회는 운제루에서 개최됐다. 공승법회는 말 그대로 신도들이 스님께 공양물을 올리는 법회다. 국내의 대중공양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대만은 이것을 법회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제루는 한 번에 3,000명이 동시에 공양할 수 있는 식당이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실내 공간은 놀랄 정도의 규모였다.

이날 공승법회에는 세계 26개국, 스님 800여 명, 7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특히, 한국 스님들도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공양 올리는 신도들 중 한복을 입은 행렬도 눈에 띄었다.

공양법회의 형식은 간단했지만 장엄했다. 성운대사의 임장으로 공양법회는 시작됐다. 갖가지 화려한 복식을 차려입은 신도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스님들 앞으로 다가서서 정성스레 음식 공양을 올렸다.

공양 중 성운대사는 “공양 역시 중요한 수행이다. 지금 우리가 공양을 하지만, 쥐도, 벌레들도, 새들도 함께 공양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양에는 평등의 정신이 있다”며 대중의 웃음을 자아낸 후 “공승법회를 잘 전승하기 위해 향후 유네스코에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계획이며, 인간불교, 생활 불법이 전세계에 펼쳐져 세상사람들이 더욱 행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스님께 공양물 올리는 법회 의식 세계 26개국 사부대중 7천명 동참 수계법회·임제종 법맥 전수식도

법문에 이어 오백송 명예신도회장은 인사말에서 “작은 불광회가 전세계에 꽃을 피우고 있어서 기쁘다”며 “전 세계인이 공승법회를 통해 서로 친해지고 선연을 맺고 불법을 실천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오 회장은 “성운대사의 생일이 음력 7월이다. 생일법회를 한사코 마다해서 생일인 7일 후에 공승법회를 오랜 기간 개최해 왔다. 대만에서 음력 7월은 귀신의 달로 좋지 않은 달이지만, 성운대사로 인해 효도의 달이 되고 세계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공승법회가 개최되는 행복한 달, 7월이 됐다”

며 공승법회의 유래에 대해 설명했다.

화려하면서도 품위가 있고 단조로운 듯하면서도 세련미가 묻어나는 보살무의 형상과 수인을 연상케 하는 보살무는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해학적인 내용을 담은 듯 중국전통놀이를 끝으로 축하 공연이 끝나자 재차 신도들이 줄을 지어 스님들에게 공양물을 올리는 것으로 공승법회는 막을 내렸다.

부산에서 공승법회에 참석한 무명 스님은 “대만 불자들의 신심과 대만 스님들의 원력을 느낄 수 있는 훌륭한 대중공양법회였다”며 “한국불교의 지도와 수행도 중요하지만 생노병사 등 모든 순간에 신도들과 함께하는 생활불교의 실천과 중생구제의 원력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전주에서 온 심란선 보살은 “불자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운 시간이었다”며 “몸소 행동하고 실천하는 행이 중심이 되는 대만의 생동감 있는 불교를 보

며 많은 생각을 했고, 웅장하고 장엄한 법회에 참가하는 내내 환희심이 가득했다”고 말했다.

부산 기장에서 온 대한 스님은 “성운대사의 큰 원력에 감복했다”며 “인간의 몸으로 이토록 장엄한 불사를 성취해 큰 감명과 신심을 얻게 해 줘서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정순 씨는 “전세계 수백 명의 스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공양법회를 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하다”며 “공승법회에서 받은 감명과 감동을 잘 간직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4박 5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불광산사, 자재공덕회, 중대선사의 면모를 들여다 보면 대만불교가 이룩한 업적이야말로 바로 사바의 꿈, 불국토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바로 그 불국토에서 부처님과 함께 하는 불사에 동참하기 위한 출가가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대만 불광산사=박경수 부산지사장



공승법회에 앞서 열린 임제종 49대 법맥 전수식(사진 오른쪽)과 수계식 장면(사진 왼쪽).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 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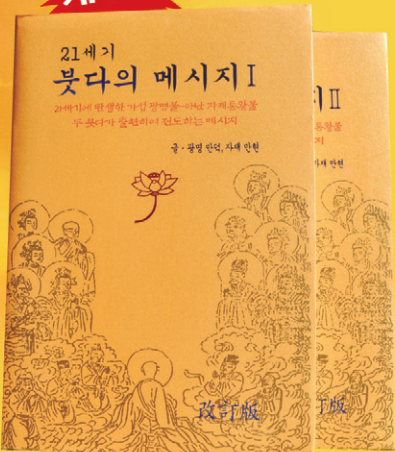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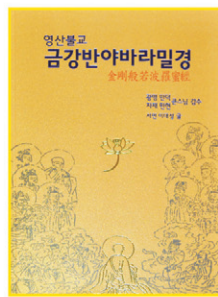
개정판



추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추천 도서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서연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

금강경오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강경해설서. 오가해를 비롯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들이 주로 선(禪)의 입장에서 해설해왔다면 일물승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미증유한 저술. 특히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영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저, 339쪽, 가격 15,00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를 읽은 불가지성인들이 《붓다의 메시지》가 불자들에게 던지는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친착하고 있는 저자들의 비평서이다. 저자들은 금세기의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요약정리하여 이 저서가 던지는 불교사적 의미를 천명하고 있다. 한 저자는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찬탄과 경이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과를 이룬 대성취자의 순수하고 청정한 법음의 성서이고 일체법을 통달한 최고의 종교철학서이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지재만현 큰스님 감수, 법강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

통상적인 비교종교학의 관점을 넘어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주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인류의 근본적 의문에 대해 최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한 달라이라마의 《한 원자 속의 우주》에서 제기한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